



일

굴

전라북도 보건사회국장 **崔奉圭**씨 —
 2백30만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崔奉圭**국장님이
 기에 한치의 **寧日**도 없다.

5市13郡14邑145面96洞에다 8050km²

의 면적으로 전국도의 8%를 차지 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西部로는 호남평야를 끼고 전주 이리 군산등 3개의 連擔都市를 가지고 있으며 동부로는 임야나 축산, 관광 개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여지가 충분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教育道인 전라북도이기에 보사행정도 순풍에 돛단듯 순조로워 보였다.

전북지부의 南相度사무국장을 위시하여 기자 일행이 도청에 도착하였을때만 해도 중앙부서의 보서관계관과 같이 南原地方으로 출장 일보직전이었다.

흰칠한 이마에 시원한 눈매는 한마디로 마음이 활달한 느낌의 첫 인상이었다.

동석한 **李基棟**보건과장, **宋南五**보건계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귀뽕해 준다.

전라북도 보건사회국 국 장 **崔奉圭**씨

『우리 국장님은 부하사랑하시길 내가죽 같이 아끼십니다. 개인 사정에도 여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하의 걱정도 내걱정같이 보살펴주시고요. 그러나 일단 업무에 임하시면 여간 치밀하고 빈틈이라곤 없는 분입니다. 특히 공사가 분명해서 일처리에 무리가 없는 분이지요.』

인상은 과묵한 편이나 공식적인 일과가 끝난뒤 간혹 酒席에라도 가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단연 주인공으로 부각, 유쾌한 자리를 만드는 분이기도 하단다.

———— 전라북도 보사행정의 자랑거리라던가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 야기해 주십시오 ————

『앞으로 다가올 여름 철 防疫對策입니다. 작년에도 방역대책 우수도로서 시상도 받은바 있습니다만, 첫째로 방역體制구축입니다. 예방접종 요원 700여명을 교육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고 마을단위 신고책임자 6,688명을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시 즉각 신고토록 조치했습니다.

둘째로 겨울을 난 모기의 집중구제작업입니다. 계몽기간과 해충구제기간을 설정해서 이미 지난 4월달에 하수구라던가 주택및 가축사육사 월동모기서식처등을 주로 소독 또는 구제작업을 해서 다대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 결과를 시군보건소와 18개읍면동으로 하여금 확인케해서 집중구제를 완료 하기도 했습니다.

세째, 19개소의 일본뇌염 채집유문등을 설치해서 조치토록 했고 네째 仔豚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비로 3천 6백만원을 확보하여 5만 4천 5백頭的 돼지 콜레라를 예방토록 미리 조치했습니다.

또한 방역 기동반을 편성, 시도단위별로 일제히 시범소독을 실시 확인까지 끝마쳤습니다.

이미 예방접종도 99만여명을 끝마쳐 여름 철이 닥아오기전까지 이미 대상인원의 61%를 끝냈지요 하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崔奉圭국장의 모습에서 치밀하고도 재치있는 행정가를 느낄 수 있어 기자의 마음 또한 호뭇했다.

기타 방역의 특수시책으로 豚舍 주변의 방역강화라던가 영세민 가구에 모기향, 모기약 보내기 운동등을 전개하고 있었다. 기일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잡아 6만여 家口를 대상으로 전개하는 이 운동은 벌써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실토하기도——.

『또한가지 자랑거리 사업으로는 성인병 검진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북도에서만 계획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道民을 위한 건강 사업으로 기대가 큽니다.

즉 85년도부터 89년까지 5개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자활보호 대상자 성인병 검진사업은 총 21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미 市郡費에다 6천 5백50만원을 책정하여 검사에 임하고 있으며 道費보조 4천 1백만원을 책정해서 심장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자궁암, 고혈압, 당뇨병검사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진차량비 2천 3백만원 X레이구입비 1천만원등을 책정해 놓고 있지요.

이 사업은 전적으로 건강관리협회 전북도지부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이미 6천명대상자중 3천 7백46명을 검사 62.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그 중에서 유소견자 1,150명의 발견입니다. 그리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조치토록 지시했습니다.』

이 얼마나 道民건강을 위한 사업이란 말인가, 早期発見 早期治療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民이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닌가 하고 기자는 생각해 본다.

南相度사무국장은 이렇게 건강관리사업을 전망하고 있었다.

『우리의 건강검사사업을 전북도만큼 열성있게 도와주고 있는 관청도 없다고 봐요. 더구나 금년에는 우리 전북에 없었던 검진차량 「건강 10호」도 보조해 주고 했으니 더욱 더 도민건강을 위해 힘써야지요.』

李基棟보건과장은 특색있는 보건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자랑이 대단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요. 그러나 對民봉사의 차원에서 본다면 크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보건소마다 별도 민원실이 없이 복도에서 대기해 왔었습니다.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대상자는 환자나 영세민등 서민층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민원실의 보장이었습니다. 우선 대기실에는 VTR 장치, 안락의자, 음료수, 휴지통등을 준비해 놓도록했고 장애자와 유아용집기를 구비해서 내원자가 우선 평안하도록 시설을 보완한 것이지요. 또한 의사나 간호원등에 깨끗한 위생복 입기, 친절한 진료와 검사,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실시등을 빈틈없이 하도록 한것입니다. 이것은 작은것 같지만 保健民願에 獻身奉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것으로 생각합니다.』

宋南五보건계장도 한마디 덧붙인다.

『이계획은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완전히 실시계획으로 있으며 이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해 나아가간다면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이 잘 되어 나아가겠구나를 기자는 생각하며 崔奉圭국장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우리 沈載鴻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인병 5개년 사업은 누가 와도 추진해야 할 도민보건의 필수적 사업입니다. 知事님 말씀이 이사업은 특수 사업임으로 꼭 知事님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有所見者는 꼭 그 후의 상황을 추적하여 검사를 위한 검사로만 끝나지말것을 누누히 지시하셨습니다.』

과연 名將 밑에 弱卒은 없구나 하고 기자는 감탄하고 있었다. 전북도의 總帥이신 지사님의 관심이 이리할진대 도민들의 건강은 걱정안해도 되겠구나를 기자는 두번 세번 느끼고 있었다.

◎...崔奉圭국장은 茂朱군수, 井州시장, 金堤군수 전북商工운수국장등 요직을 두루거친 全北通 實力派.

76년에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 수상, 84년에 방역사업 표창을 받은바 있다.

부인 양동임 여사와의 사이에 1男1女. 취미는 바다낚시와 테니스.